

여수지역 석유화학 연관 업종 전망치 급락…지원 절실

여수상의4/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비용 증가·수주 여건 악화 등 이중고
올해 4분기 전남광주 여수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전 분기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역 경제의 근간인 석유화학 연관 업종의 전망치는 급락해 본격적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다.	비용 증가·수주 여건 악화 등 이중고
1일 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역 내 제조업체 64곳을 대상으로 '2026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	BSI 50 3/4분기 대비 10.5p나 급락
	제조업체 체감경기는 소폭 반등 예상
	한문선 회장 “정책금융 확대 등 필요”
	조사(BSI)’를 실시한 결과, 종합 BSI는 65.6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61.8) 대비 3.8p 오른 수치지만 여
	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업종별 체감경기의 경우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연관 업종 BSI가 50.0으로 3/4분기(60.5)보다 10.5p나 급락했다.
	이는 최근 여수국가산단 내 석유화학 업황 부진과 구조 개편, 주요 기업 감소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플랜트 정비·운송 등 연관 업종의 수주 여건까지 당달아 악화됐기 때문으로 여수상의는 분석했다.
	반면, 일반 업종 BSI는 85.7로 전 분기(83.3) 보

다 22.4p 상승해 2026년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말 소비와 방문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으나, 지수가 여전히 기준치 100을 밑돌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 회복보다 그동안 부진이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경영 실적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52.7%는 올해 영업이익이 당초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영을 옥죄는 최대 애로 사항으로는 '원자재·에너지 등

생산 비용 상승'(37.1%)과 '판매·수주 여건 악화'(27.0%)을 꼽았다.

한문선 여수상의 회장은 “일반 업종의 기대감 상승이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을 뿐, 핵심인 석유화학 업계의 체감경기는 오히려 더 차갑게 식었다”며 “지역 내 기업들이 비용 증가와 수주 가뭄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정책 금융 확대나 위기 산업 지원 등 경영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전선 기자



광양시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 6개월여 만에 지역 출산 복지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진은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산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편지쓰기 강좌 모습. <광양시 제공>

광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역 핵심 출산 인프라 안착

개원 후 6개월간 232명 이용 만족도 ↑

모션베드 등 시설·요일별 육아 교육도

첫째아 100만원 지원…취약계층 무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 6개월 만에 수준 높은 시설과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까지 더해지며 지역 출산 가정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1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문을 연 공공산후조리원의 누적 이용 산모(3~8월 기준)는 총 23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광양시민이 202명(87%)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지역 내 출산 복지 인프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군 거주자도 30명(13%)이 이용했다.

특히 골목길 만한 부분은 산모들의 만족도다.

개원 6개월을 맞아 지난 8월 이용 산모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신생아 실 직원 친절도는 94%, 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91%가 '만족 이상'이라고 답했다.

산후 회복의 핵심인 마사지실은 환경, 친절도, 관리 수준 등 전 항목에서 응답자 전원(100%)이 '만족 이상'을, 식사·배식 만족도 역시 91%에 달했다.

호평의 배경에는 쾌적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자리하고 있다. 총 16실 규모의 산모실은 일반실 기준 37.7㎡(11.4평) 공간에 모션베드와 안마의자를 기본으로 갖췄다.

시설 곳곳에는 건식 반신욕기와 워터마사지 베드, 다리마사지기 등 최신 산후 회복 기기가 마련됐다. 여기에 산후요가, 신생아 목욕 교육, 감성미술 등 다채로운 요일별 프로그램이 산모들의 심리적 안정과 육아 지식 습득을 돕는다.

가장 큰 장점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대

폭 낮춘 비용 지원 혜택이다. 14일 기본 이용료는 160만원이지만, '광양시 출생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첫째아를 출산한 광양 거주 산모는 총 100만원(1일 10만원씩 최대 10일)을 지원받아 실제 본인 부담금은 60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다자녀 출산모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감면 대상자는 최대 14일간 도비와 시비를 더해 이용료 전액을 지원받아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약은 분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전남광주특별시 아이톡' 누리집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개원 초부터 산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즉각 반영한 결과, 운영이 빠르게 안정화됐다”며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회복하는 거점이자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광양시의 대표 출산 지원 인프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담양호 ‘순환형 생태탐방로’ 조성한다

郡, 안전·비용 문제 ‘횡단보도교’ 백지화

총 140억원 투입 수상 산책로·조명 설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은 1일 “담양호를 가로지르는 횡단 보도교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호수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순환형 생태탐방로’ 조성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당초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의 핵심으로 가칭 ‘미르교’ 건설을 검토했지만 군은 정밀 지반 조사 결과 깊은 수심과 지반 구조 탓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초공사에 막대한 추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확인돼 계획을 변경했다.

기존 보도교 대신 총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해 호수 주변의 단절된 숲길과 수변 산책로를 등글게 있는 거대한 순환형 동선을 구축한다. 새로 운 탐방로는 인근 마을과 기존 명소인 용마루길을 하나로 연결하게 된다.

탐방로 일대에는 인공폭포 경관을 감상할 수



담양호 생태탐방로 수중데크 예상 조감도. <담양군 제공>

있는 수상 산책로와 야간 조명이 설치되며 구간 안전시설도 보강된다.

또한 주차장과 수변공원 등 휴식 공간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방문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달 22일 용면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변경안을 공유했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친 뒤 오는 2027년 착공해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

/담양=정승균 기자



사순문 장흥군수, 벼 병충해 현장 점검

벼 생육 상태·방제 현황 등 살피

사순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수는 최근 관산을 영농현장을 찾아 벼 병충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현장 점검은 피해 규모와 확산 추이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 군수는 벼 생육 상태와 피해 정도, 방제 현황 등을 살폈다. 또한 피해 농가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신속한 현장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군은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병충해 정보를 공유하고 예방·방제 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피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행정·재정적 지원 여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 군수는 스마트농업 영농지원 현장과 관산을 행정복지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역 농업 현안과 영농 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병충해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예찰과 방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민들이 근심을 덜고 안심하며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곡성군, 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자체 지원

광역 지자체 지원 제외 기업 대상

시설 최대 5억·고용 등 파격 혜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은 최근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 광역 단위 지원에서 소외된 투자 기업을 위해 자체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존 공장을 유지하지 않고 광역권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에 전남광주특별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들의 지원 공백을 메우고 지역 내 신규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지원안에 따르면 산업단지를 최초 분양받는 기업에는 부지 매입비의 30% 이내(최대 4억원)를 입지보조금으로, 2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 투자에는 초과액의 5%(최대 5억원)를 시설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신규 채용·교육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면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3억원의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덜기 위해 입지·시설 보조금은 착공 시 70%, 완료 시 30%로 분할 지급된다. 고용 보조금 등은 실적 확인 후 지급되며 3년간 사후 관리를 거친다.

군은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으로 기업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운곡특화농공단지를 비롯한 기업 유치와 분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광역 단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실질적인 지역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의미가 크다”며 “현장 수요를 반영해 운곡특화농공단지 등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매산등 근현대 유산 스탬프투어’ 운영

순천시, 내일 초등생 동반 20가족 대상

선교사 가옥 등 4곳 인증·기념품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는 1일 “오는 3일 도심 곳곳에 숨겨진 근현대 역사를 걸으며 배우는 특별한 가족 체험 프로그램 ‘매산등 근현대 문화유산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탬프투어는 순천시 생생 국가유산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참가 가족들은 매산등 일대를 걸으며 근현대문화유산들을 찾아보고 체험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출발지에서 스탬프투어 안내를

받은 뒤 스탬프북을 들고 ▲조지와초기념관 ▲매산중학교 매산관 ▲프레스턴 선교사 가옥(사진) ▲순천선교부 외국인어린이학교 등 4곳을 돌며 스탬프를 찍으면 된다.

4곳의 스탬프를 모두 모은 뒤 코인선교사가 옥 앞에서 가족사진을 촬영해 출발지에서 인증하면 완주 기념품이 제공된다.

투어는 선착순 20개 팀(60명 이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 희망 가족은 2일까지 전용 QR코드나 운영단체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가족이 함께 걸으며 평소 지나치기 쉬운 지역 근현대 문화유산을 친근



순천 매산등 성지순례길 프레스턴 가옥 및 유산안내판.

<순천시 제공>

하게 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역사적 흔적을 찾으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장성군, ‘생명존중 안심마을’ 참여기관 13곳 지정

지역사회 자살 예방 안전망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은 1일 “최근 지역사회 내 자살 예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명존중 안심마을’ 참여 기관 13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마을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장성군은 남면·북일면·북이면 생활권을 중심으로 학교, 지역아동센터, 종교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13개 기관을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해당 기관들은 앞으로 ▲자살 고위험군 발굴·치료 연계 ▲자살 예방 인식 개선 캠페인 참여 ▲생명지킴이 교육 이수 ▲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자살 위험 수단 차단 등 5대 핵심 활동을 수행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생명 존중 문화가 주민들의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정기관·지역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